

관료의 나르시시즘 연구*

이병량**

이 연구는 관료제와 관료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병리학적인 용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르시시즘은 과대자기, 자신의 외부에 대한 무시, 대상에 대한 변별 능력 결여, 분노와 공격성, 자기혐오, 치료에 대한 저항, 특권의식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막스 베버의 고전적 논의에 기대어 관료의 지위, 자격, 위상이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관료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함께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의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연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 연구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관료, 관료제, 나르시시즘, 관료의 나르시시즘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연구는 2013년 11월 29일 한국조직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발표 당시 학회에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께서 논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었다. 또한 심사의 과정에서도 익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들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논문의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 문화정책 등이다(libertas@kyonggi.ac.kr).

I.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관료들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어느 정도라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관료는 정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입법자 혹은 정치인들의 결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또는 이러한 결정들의 추상적인 함의를 개별 사례에 적절히 적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 이해되는 것이다(Butler[이성규·김행범], 2012). 물론 우드로우 윌슨의 유명한 정치와 행정의 구분에 관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관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되면서 우드로우 윌슨의 정치와 행정의 엄격한 구분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는 관료의 역할이나 위상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 사회의 성립 과정에서 관료제가 차지하는 의미를 밝히고, 더 나아가 전통적 사회의 지배체계와는 구분되는 관료제의 원리를 규명한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관료의 손아귀에 있다. 왜냐하면 권력은 의회의 토론이나 군주의 선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정의 집행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 영역과 시민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이는 군주제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어디에나 적용되며, 순환식 행정으로 유지되는 소규모 칸톤 국가가 아니라 대규모 거대 국가라면 어디에든 적용된다...채용된 관리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적 욕구와 문제를 결정한다(Weber[이남석], 2002: 15).”

관료가 지닌 이와 같은 막대한 역할과 위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광과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막스 베버에 의해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관료

제는 한편으로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근대 사회의 발전 과정에 의해 그 성립이 촉발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운영의 방식으로 근대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기도 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빈센트 오스트롬은 인류 문명의 미래나 인류 복지의 성쇠에 대한 책임이 행정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Ostrom, 1973). 이처럼 관료제와 행정에게 영광과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면 관료제와 행정의 주체인 관료가 이러한 영광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관료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고, 그에 따른 영광을 누리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관료는 자신과 자신의 결정이나 행위에 뒤따르는 영광이나 책임을 언제나 달게 감당하고 있는가? 현실의 관료들은 대체로 영광만을 선택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광은 당연한 것이지만, 책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자세가 관료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모습인 것이다. 관료의 태도에서는 언제나 옳은 일을, 옳은 판단으로, 옳게 수행하고 있다고 믿음이 엿보인다. 더불어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¹⁾

이 글은 관료의 이와 같은 영광과 책임에 대한 선택적 수용의 근거를 관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과업이나 성과에 대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기 확신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이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관료가 내리는 결정인 정책이란 본질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인식론적 지위를 가설(hypotheses)라고 지적한 란다우의 논의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란다우에 따르면 정책은 만약-그렇다면(if-then)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만약 이리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현재의 상태는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다. 당연히 가설은 현실을 통해 옳은 것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판명될 수 있다. 이 말은 정책은 가설이 그렇듯

1)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고위 관료의 토로의 형식으로 제기된 ‘공무원의 영혼’에 관한 논의들도 결국 관료의 책임 회피의 한 형태라고 판단된다. 윤건수·김순희(2013)는 이를 정체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필자는 ‘공무원의 영혼’이라는 언급을 자기비하를 통한 관료의 책임회피 전략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필연적으로 잘못될(error)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Landau, 197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관료들에게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관료들이 자신이 내린 결정과 이의 집행, 그에 따르는 여하한 결과의 오류나 실패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관료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판단과 행위는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관료들의 이와 같은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관료의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발견하고자 한다.²⁾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과도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병리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관료 혹은 관료제의 병리 현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심화하려는 시도이다. 관료제의 병리 현상에 대한 논의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 혹은 역기능의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는 교과서적인 논의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관료제의 구성원으로서 관료의 심리적 상태의 원천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주로 기존의 논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료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 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관료 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근 두드러져 보이는 한국의 관료제 연구 경향과는 차별성을 갖는다.³⁾ 이와 같은 시도는 새로

2)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개인적 성격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실체로서 이해하는 관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신프로이트학파의 Fromm 이후에 등장한 이러한 시도는 나르시시즘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부분이 자기몰두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종숙, 1997)

3) 전자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도로는 「정부학연구」 2012년 제18권 제3호의 ‘관료제 다시보기’ 기획을 들 수 있다. 이 기획에서 임의영(2012)는 월도의 논의에, 이창길(2012)은 윌슨(J. Q. Wilson)의 논의에, 이문수(2012a)는 악셀 호네트의 논의에 기대어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재해석하고 있다. 후자의 경향은 주로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하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두드러지는 연구 성과로는 임도빈 외(2013)의 《공직사회의 낭증지추를 찾아서》가 있다. 이들 연구들 역시 관료제나 관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

운 만큼 많은 논쟁의 여지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의미 있는 논쟁을 통하여 관료제나 관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II. 나르시시즘의 개념과 구성요소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자기애(自己愛)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전적으로는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⁴⁾ 이 장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서 나르시시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개념이 어떤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1. 나르시시즘의 개념

나르시시즘은 잘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고 있다. 신화에 따르면 나르킷수스(Narcissus)는 강의 신과 물의 요정의 아들로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비극적인 죽음에 이른 미소년이다. 사실 이러한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원숙한 노령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가해한 운명의 힘에 의해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은 맑은 샘에 비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자신이 모습인 줄 알면서도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는 성과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거듭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관료제나 관료의 병리 현상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전자의 연구 가운데 이창길(2012)에 따르면 1970년 이후 2010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관료제나 관료를 제목으로 하는 논문은 54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마저도 2000년 이후에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의 ‘나르시시즘’ 항목에서 인용했다.

갈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⁵⁾(Ovidius, 2006: 155-164). 이와 같은 나르키투스의 신화는 애정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나르키투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나르시시즘이 학술적인 용어로 정립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정신분석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최초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엘리스(Havelock Ellis)와 네케(Wilhelm Näcke)로 알려져 있다. 엘리스의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투영하는 다른 동성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병리 현상으로 ‘나르키투스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한 한편, 네케는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성도착증 한 형태로 ‘나르시시즘(Narcissus)’이라고 명명하였다(Holmes, 2002: 8-9; Freud, 2003b: 45).

나르시시즘이 인간의 정신적 상태나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립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듯이 프로이트였다. 프로이트 역시 위의 두 학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르시시즘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자아(das Ich)를 향한 리비도 집중(Libidobesetzung)”으로 설명되고 있다(Freud, 2003b: 48). 다른 대상으로 발현되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리비도는 결국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프로이트 그런 의미에서 자아의 발전을 자신에 대한 리비도의 집중을 포기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인간(인류, human objects)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Alford, 1988: 25). 결국 나르시시즘은 성장의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병적인(morbid)’ 정신의 상태 혹은 심리 구조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의 진전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을 정상적 나르시시즘과 병리적 나르시시즘으로 구분하는 케른버그(2008)의 논의 등이 그 한 예이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 나

5) 신화에 따르면 나르키투스는 결국 “그는 바로 나야. 이제야 알겠어. 내 모습이 나를 속이지는 못하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거야. 내가 불을 지르고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라는 깨달음에 이르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끝내 빠져 나오지 못하고 만다(Ovidius[천병희], 2006: 161).

르시시즘은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나 이상적 자기상과 이를 반영한 자아 목표 등의 설정에 역할을 하는 심리적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Kernberg, 2008: 334-341). 흄즈의 건강한 나르시시즘 개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희망, 포부, 야망, 이상 등의 현상이나 바람직한 자기 존중과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지속적 태도로 설명되고 있다(Holmes, 2002: 11-13). 물론 이들도 나르시시즘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어서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프로이트적 나르시시즘의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나르시시즘을 자신에 대한 ‘스스로-남으로부터’ 평가의 격차에 대처하는 심리적 대응기제로서 자기에 혹은 자기 확신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진단하고, 분석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정신병리학적 개념이기 보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나 그 결과에 대해 자기 본위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성향이나 특별한 귀인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본위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Campbell & Sedikides,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본위 성향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심리적 대응체계인 반면 나르시시즘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남으로부터’ 평가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속적인 심리적 경향이나 태도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Westen, 1985: 30-32).

결국 나르시시즘은 애정의 방향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그 결과 자신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병리적인 심리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현실화되는 것일까? 이는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

이 연구는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관료제가 지닐 수 있는 역기능으로 구체

적으로는 관료에게 나타나는 병리적 심리상태나 현상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르시시즘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나르시시즘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즘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자기관계적 측면과 타인관계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나르시시즘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적 심리와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적 태도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양상으로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⁶⁾

1) 나르시시즘의 자기관계적 구성 요소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구성 요소이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 보이는 병적인 자기 확인은 ‘거대자기(Grandiose Self)’라고도 명명된다. ‘거대자기’는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강조 혹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절대 무해하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된다(Freud, 2003a: 114-115; Kernberg, 2008: 299). 언제나 자신이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나 성공적인 것이어서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거대자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양태는 예를 들자면 “이

6) 나르시시즘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나르시시즘의 병인(病因)이나 발현 과정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Buss and Chiodo, 1991).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로는 Raskin & Hall(1979)가 제시한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고, 이후에 나르시시즘적 성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NPI나 또는 나르시시즘에 관한 좀 더 이론적인 분석에서도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자기관계적, 타인관계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나르시시즘 개념에 대한 이해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관료의 나르시시즘 양태로 적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를 자기관계적 요소와 타인관계적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착안점을 제공하여 준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중요한) 일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내가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또는 너희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자기과시로 나타날 수 있다.⁷⁾

그러나 나르시시즘적 ‘거대자기’는 언제 어디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대자기’는 쉽게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나르시시즘적 심리 상태는 분노 혹은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분노와 공격성이라는 요소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의 좌절에서 기인한다. 자신이 느끼는 자기 자신의 특별함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사소한 거절은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통의 인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재난이나,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재난이나 충격에 대해 보통의 인간들 이상으로 입는 정신적 상처 역시 나르시시즘적 분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절이나 비판에 대해 민감하고 소심하게 반응하고, 더불어 비판, 실패, 비난에 대해서도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의 한 양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Holmes, 2002: 24-27; Kernberg, 2008: 287; 이만홍, 1995: 20-21).

이와 같은 심리적인 경향은 경우에 따라 또는 역으로 자기혐오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기에가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자기에 대한 비하 및 혐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Holmes, 2002: 36-37). 이는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비정상적으로 표현되는 자기혐오는 이런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자기관계적 구성 요소는 특권의식이다(Raskin & Terry, 1988: 890).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수한 것이라고 믿는 특권의식은 자신의 행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 다른 자신이 하

7)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자기표현적 혹은 자기노출적(exhibitionistic) 경향 역시 나르시시즘적 양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Buss and Chiodo, 1991: 181-183)

는 어떠한 일도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특권의식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의 발현태일 것이다.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이 현실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르시시즘의 타인관계적 구성 요소

자신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나르시시즘의 자기관계적 성향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심리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신의 외부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라고 할 수 있다. 나르시시즘의 타인관계적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성향은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영역이나 자신 보다 우월한 능력을 보이는 타인에 대하여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Kernberg, 2008: 287). 자신이 모든 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자신의 이상으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이와 같은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이외의 대상에 대한 변별 능력의 결여라는 양태로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의 타인관계적 구성 요소는 타인이나 자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현실에 대한 미세한 변별 및 인식의 능력 상실로 나타나거나 혹은 타인이나 외부 현실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의 결여로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다(Kernberg, 2008: 347-350). 어떤 일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들이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요소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르시시즘의 타인관계적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상화 전이라는 경향도 들 수 있다. 이상화 전이는 강하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급작스럽게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이상화하는 경향이라고 설명된다(Kernberg, 2008: 294-297).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왔거나, 혹은 자

신이 자신의 존재 가치의 인정을 위해 심리적으로 의탁해왔던 어떤 대상에게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은 대상과 신속하고 완전한 단절을 시도하는 것 역시 나르시시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외부 세계는 자신에 의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타인관계적 구성 요소로는 치료에 대한 저항을 들 수 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병리적 상황에 빠져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도, 또 누구도 자신을 온전하고 정당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분석 과정을 평가 절하되고, 자신이 자신을 진단하는 분석가에게 의존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부인한다(Kernberg, 2008: 257-258).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특성은 반성의 결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자신에 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만 낮은 성과나 실패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그와 같은 평가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내려진 평가이며,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는 자신의 행동이나 고쳐질 수 있거나 개선될 소지가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거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에는 반성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료에게서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관료에게 주어져있는 지위와 위상이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Ⅲ. 관료제와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

관료제가 지닌 문제점을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점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관료제가 현실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병폐는 이미 관료제 연구의 주요한 경향이 되고 있다(박천오, 2005). 관료제의 역기능을 병리(bureaupathology)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톰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ompson, 1977). 이 연구 역시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관료제 혹은 관료의 문제를 병리의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제와 관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고전적인 관료제 이론에서 논의된 관료의 자격, 지위, 위상 등이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관료제: 의미와 원리

막스 베버가 설명하고 있는 관료제의 핵심에는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합리성이란 규칙과 사실, 목적과 수단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개념이다(Kalberg, 1980). 이는 공동체의 운명을 개인의 ‘자의(Willkür)’나 비일상적인 자질 등과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에 맡기는 근대 이전의 통치의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행위의 전제로서 합리적인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통치나 행정의 방식과는 구분되는 근대적 형식의 행정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이 막스 베버의 주장이었고, 관료제는 그와 같은 합리적 행정을 현실화할 통치의 형태였다.⁸⁾

이를 위해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일련의 운영 및 구성의 원리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베버(Weber, 1946)에게 관료제라고 하는 근대적 형식의 공적 기능이 운영되는 공적인 관할 영역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관료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규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은 공적 의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명령 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활동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운영 및 구성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자의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의성은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적인 혹은 인격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인간적인 혹은 인격적인 속성은 변덕이나 흥분으

8) 이런 의미에서 막스 베버는 “근대 이후의 역사과정을 가치와 도덕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활동이 계산가능하고 통제가능하다고 믿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받는 합리화과정”으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문수, 2012b: 673).

로 쉽게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로 행위에 대한 예측이나 계산의 불가능성을 낳는 요인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 선택의 수준을 떨어트려 문제에 대한 주먹구구식의 대처를 낳게 하고, 공동체의 ‘운명(destiny)’을 그야말로 ‘운명(luck)’에 맡겨 놓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막스 베버에게서 관료제의 운영 원리는 자의성의 배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료제에서 요구되는 엄격하게 통일적인 직위상의 규율과 통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일원적으로 조직화된 계층제와 그에 대한 복종은 관할 영역을 장악하는 ‘능력’에 대한, 또는 비인격적인 질서로서의 ‘법’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원리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우두머리인 ‘상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명령 역시 비인격적인 질서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Weber, 1946; Weber[박성환], 1997). 여기서 비인격적 질서로서 ‘법’이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하한 과정을 통해 미리 제정되어 있는 규칙이다. 그리고 이는 적어도 어떤 일원적으로 조직화된 계층제와 이들이 관장하는 공적인 관할 영역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의 배제와 더불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계산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제는 일정한 공적인 관할권에서 일련의 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관리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의성의 배제라는 요구는 문서화의 원리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구두에 의한 논의가 사실상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 있거나,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문서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그 외에도 사전 논의와 제안 및 최종 결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처분과 지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Weber[박성환], 1997). 이는 사실상 관료제의 모든 업무 수행이 문서나 서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일시적인 감정이나 판단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⁹⁾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합리적인 성격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자의성 배제라는 운영 및 구성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관료제의 구성원인 관료에게도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들로 구성된 관료제 역시 일정한 사회적 위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2. 관료제에서 관료의 자격, 지위, 위상: 나르시시즘의 조건

관료제는 관료제적 행정 간부를 수단으로 하는 합법적인 지배의 한 형태이고, 행정 간부 전체는 개별적인 관료로 구성되어 있다(Weber[박성환], 1997). 이는 결국 관료제가 그 운영 원리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개별 관료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¹⁰⁾ 따라서 관료제가 합리적인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관료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관료제 운영 원리의 핵심은 자의성의 배제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칙에 근거한 업무의 수행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칙은 개념에 대한 정의와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고, 이러한 학습은 기본적으로 전문 교육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자격증이나 졸업장과 같은 공적 문서의 형식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관료로서의 자격은 이를 평가할 수

9) 나르시시즘과 관련하여 자의성의 배제는 조정자로서의 우월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 유발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제제기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0) 이창길(2012)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던지고 있다. 관료제와 관료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의 질문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질문은 무척 흥미로운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관료의 지위나 위상이 관료제의 조건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있는 합리적인 시험의 과정을 통해 조사되고, 이를 통과한 사람만이 관료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Weber[박성환], 1997). 그런 의미에서 관료는 대중들로부터 선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들의 생각이나 의견에서 자유로운 훈련된 전문가로서의 관료는 직무의 정확한 수행이 가능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전문 교육을 받은 자들 가운데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Weber, 1946).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과정 역시 관료제적 합리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료로 선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험은 개방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시험 과정 역시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이병량, 2002). 이는 타고난 혈통이나 계급 등의 귀속적인 신분이나 특권에 의한 전통적인 지배와는 차별적인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지배로서의 관료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졸업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적 증서는 그 자체로 관료가 되는 사람들은 대중과는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 관료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능력과 노력의 측면에 있어, 심지어는 행운의 측면에 있어서도 관료를 다수의 대중과는 구별시켜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료는 지배받는 대중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위신을 지니게 된다(Weber, 1946). 관료는 곧 선택받은 인간인 것이다.¹¹⁾

관료가 지니는 지적 능력은 관료제의 운영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어떤 의미에서 관료제는 지식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Weber[박성환], 1997). 관료는 이미 전문 지식에 바탕을 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관료제의 운영 과정에서 직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관료가 축적하게 되는 이와 같은 전문성은 관료제의 권력의 원천이 된다. 관료 이외의 어떤 집단도 관료가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다. 이는 지배받는 대중에게서 뿐만 아니라 관료제를

11) 시험에 의한 능력과 자격의 확인 과정이 관료가 자의식에 함몰될 가능성이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이것이 관료의 나르시시즘 발현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명의 심사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논의를 보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준 의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치적 지도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더구나 관료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더욱 강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관료제에 대한 공동체의 의존이 커질수록 전문성 혹은 전문 지식을 통한 관료의 힘은 더욱 두드러진 것이 된다.¹²⁾ 이런 상황에서 관료제나 관료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인 것이 되기 힘들고, 관료는 자신 보다 정치적으로 상위에 있는 지도자나 자신이 지배하는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일을 아는 사람은 또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오직 관료뿐인 것이다.

관료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다른 집단, 특히 지배받는 대중으로부터 멀어진다. 전문 지식을 통한 관료제의 기능적 전문화는 문제에 대한 순수하고 객관적인 고려나 계산 가능한 규칙, 혹은 개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상적인 관료는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내지도 흥분하지도 않는(*sine ira et studio*)’ 인격성에서 자유로운(*Unpersönlichkeit*)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훈련받은 전문가로 요약할 수 있는 관료의 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에게 요구되는 규범이기도 한 것이다(Weber, 1946; Weber[박성환], 1997). 이와 같은 규범적 요구는 한편으로는 지배의 대상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나 자의성이나 전횡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냉담한 관료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¹³⁾ 대중에게 무관심한 관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결여한 관료, 그들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관료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오재록(2009)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한 기자가 경제부처 고위관료에게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서 관료들의 힘이 위축될 것이라 전망하자, “걱정 말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해도 다 적용할 수 있으니. 아마 6개월 뒤에는 우리 세상이 돼 있을 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관료가 얼마나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했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이후의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13) 이도형(2012)은 이러한 시민-관료관계를 그들-관계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IV. 관료는 나르시시스트인가?: 관료적 나르시시즘의 양상

이 연구는 관료제와 관료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나르시시즘’이라는 병리학적인 용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관료제나 관료를 병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이 연구는 관료제의 역기능과 그 근원을 관료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 논의에서 이미 관료의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의 문제는 실제로 관료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이나 행태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료 나르시시즘의 양상은 자기관계적 요소와 타인관계적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한 나르시시즘의 구성 요소 논의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 연구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관료적 나르시시즘의 자기관계적 양상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우선 자신이 언제나 옳은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신념과 이에 기반한 긍정적인 자기 평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거대자기’, 즉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도 연결된다.¹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냈다’는 관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주장이나 언명은 이러한 관료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외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적인 태

14) 이 연구의 초안을 한국조직학회(2013. 11. 29.)에서 발표했을 때, 한상일 교수는 관료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애국자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대자기의 전형적인 한 외현은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다.

15) 1994년에 나온 《한국의 경제관료》에서는 엘리트 의식이 강한 경제관료들이 강박처럼 즐

도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적 태도는 관료가 가진 전문성에 의해 정당화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전문성은 업무의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나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 기준의 독점은 자신들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의 정당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¹⁷⁾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결코 실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양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욕구의 좌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노 혹은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관료는 자신이나 자신

겨 쓰는 말이 “내가 과장 때 그 법을 만들었죠”, “그건 내가 청와대에 파견 근무 나가 있을 때 한 겁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이나 이와 같은 심리 상태는 관료들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에서든 흔히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관료들의 회고록이나 자서전 자체가 자기과시적 나르시시즘의 발로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일일이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관료들이 쓴 책의 장 제목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과장은 공직과 명예의 중심이다’, ‘기획은 모든 업무의 시작’, ‘인사는 만사다’, ‘삶의 터전을 관리하는 일’, ‘건축은 예술이다’, ‘국가 건설의 기반을 세우다’, ‘모든 행정은 사회복지다’ 등이 그것이다(다산을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2012). 이 책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온 관료들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어 무척 흥미롭다. 더불어 ‘거대자기’의 한 전형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16) 사실 이 연구의 발단이 된,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으로 관료를 이해하게 된 계기는 2006년 필자가 참여한 한 연구과제였다. 1981년부터 추진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 계승하여 1992년부터 실시된 후계농업인사업 사례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한 이 연구에서 필자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후계농업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관련 부처의 전직 관료조차도 “관료들도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평가한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처 현직 관료의 평가는 “12만 4~5천명, 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지역에서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무부처의 공식적인 평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2조 2,93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3,477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전영평 외, 2006). 이와 같은 평가의 괴리를 낳는 원인을 관료의 자기 성과에 대한 과도한 확신으로 보고 이를 개념화시켜 보려 한 것이 이 연구의 발단이 되었다.

17) 잘 알려져 있듯이 공공선택이론은 관료제에 만연한 이러한 현상을 주인-대리인문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의 집단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에게 화를 낸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를 따져 보기 보다는 우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또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주장하려고 한다. 다음에서 보여주는 사례는 이와 같은 공격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총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현재 재경경제부 장관 등 고위 경제관료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관료들”이라며 “여당·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관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실패한 관료론’이었다. 이 장관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죄송하다”고 답변했지만 재경부 관료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4년 뒤, 참여정부 들어 ‘검증된 구관(舊官)’을 자처하며 다시 돌아온 이현재 재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학습기간을 가질 만큼 한가롭지 않고, 아마추어적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롭지도 못하다”며 ‘프로 관료론’을 취임 일성으로 내뱉었다(관료들과의 피말리는 전쟁, 《한겨레21》, 2006).

비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은 자기혐오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신들에게 비판이 집중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공격성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관료는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확신이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비하는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자기 비하를 통해 관료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회피할 수 있다. 최근 관료에 대한 수식어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혼 없는 관료’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적 자기혐오 내지는 비하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한 관료의 말은 나르시시즘적 자기혐오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했다.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정권이 바

핀 후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더군. 물론 그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스스로 바꾸진 않았지만 같은 부서가 만들고 부수고. 만들 때는 만들어야 하는 논리, 없앨 때는 없애야만 하는 논리를 만들지”(정권입맛 맞춘 정책자판기, ‘영혼이 없다’, 《내일신문(인터넷판)》, 2013. 08. 16).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중국적으로는 특권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수한 것이라고 믿는 특권의식은 관료가 자신의 행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¹⁸⁾ 관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과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의 행태는 이와 같은 특권의식이 현실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관료적 나르시시즘의 타인관계적 양상

위에서 보았듯이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된다. 한편으로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자신을 둘러싼 자기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개된다. 그 대상은 주로 국민이 될 것이고, 또는 관료제나 관료와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외부에 대해 무관심을 낳는다. 관료는 자신의 외부를 무시한다. 관료는 관료제 이외의 집단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 절하한다.¹⁹⁾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정보력을 과대평가하는 만큼 관료제 이외의

18) 만하임(1952)은 이와 같은 관료제의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회화화하고 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자는 죽어버렸군요.”

19) 이 점에 대해서는 이종범(1991)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신이라고 하면 사회적 불신이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로 생각하지, 반대의 경우는 별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국민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며...행정이 국민

집단, 예를 들어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정보력은 평가절하한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제기하는 여러 요구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으로 치부된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시하기도 한다.²⁰⁾ 관료제나 관료들에게서 생산된 정보나 혹은 이들에게 통제를 받는 집단에서 나온 정보만이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진다.²¹⁾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관료제의 고객인 국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현실에 대한 미세한 변별 능력의 상실로도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도 사라진다. 국민들은 지배의 대상으로서 혹은 전 체로서 집단으로만 파악되고,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의 생산으로 이어진다.²²⁾

관료의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형태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자신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또 그 누구도 온전하고 정당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평가도 부정확한 것으로 평가 절하되고, 관료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로 여겨진

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은, 국민의 능력에 대한 불신 또는 무시성향과 국민의 규칙준수에 대한 불신으로 나누어진다.”

20) 다운스(1967)가 제시한 ‘슈퍼맨 신드롬(Superman Syndrome)’은 이와 같은 관료 나르시시즘의 양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스는 관료제 외부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책의 실현가능성 등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거창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슈퍼맨 신드롬은 실제로 매우 흔한 현상이라고도 설명한다.

21) 2014년 3월 6일 국무총리가 언급한 ‘공급자 위주 정책’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관련한 논평 기사는 ‘내가 옳다’는 사고에 젖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무총리 역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진다(《국민일보(인터넷판)》의 2014년 3월 6일자 기사, ‘정총리 “정부정책 번복되면 불신초래” 장관들 질타’와 같은 날의 《서울경제(인터넷판)》 기사, ‘세상은 4차원인데 관료는 1차원’을 참고하였다)

22) ‘탁상행정’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탁상행정’의 사례는 일일이 들 수조차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검색 서비스(www.kinds.or.kr)에서 ‘탁상행정’을 검색한 결과, 지난 1년 간(검색 시점은 2014년 3월 14일이다) 총 834건의 기사가 있었다. 물론 동일한 사례를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다.

다. 따라서 평가와 진단은 거부되고, 그 결과 역시 부인된다.²³⁾ 평가와 진단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반성의 여지도 발견되지 않는다.²⁴⁾ 관료는 자신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만 낮은 성과나 실패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들에게 내려진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의 행동이나 고쳐질 수 있거나 개선될 소지가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반성의 결여는 관료제를 학습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게 된다.²⁵⁾

V. 몇 가지 쟁점들: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관료제 혹은 관료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관료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함께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현재의 단계에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논의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가 앞으로

23) 이러한 현상은 평가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BSC에 대한 관료들의 태도를 연구한 강윤호(2010)에 따르면 관료들은 BSC를 “끼워맞추기식 평가”라거나, “말따먹기”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면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조경호(2008)의 연구나 황진대·윤광재·전기우(2009)의 연구,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금재덕·이성도(2009)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4) 조직진단의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임도빈(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숨기기, 외부전문가의 포획, 권력게임 등을 통해 진단은 결국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조직진단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혜택 보는 사람만 있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패나 책임이 드러나 인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저지하는데 진력하는 관료에게 인정과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25) 김창수(2009)는 지방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정책학습의 제도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의 공무원들은 비판에 단혀 있고, 열린 마음으로 작은 오류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결하고 가야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현재까지 정리된 잠정적인 답안을 숙고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논쟁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론을 대신하여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을 정리한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현재까지 마련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의 쟁점은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막스 베버의 논의에 기대어 관료의 지위, 자격, 위상이 관료의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관료 나르시시즘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형태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발현의 조건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르시시즘의 조건인 대중의 생각이나 의견으로부터의 자유, 대중과 구분되는 능력과 위신, 전문성에 근거한 권력, 비인격성을 기반으로 하는 냉담은 그 자체로 관료를 나르시시스트가 되게 하는 잠재적 조건이자, 발현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나르시시즘 발현의 조건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조직으로서 구체적인 정부관료제의 구조나 운영의 원리 등을 포함한 특성이 관료의 나르시시즘 발현을 촉발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정부관료제의 공조적으로서의 특성과도 맥락을 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직이론에서 교과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조적의 특성인 목표의 모호성이나 상충성에 기인한 평가나 환류의 곤란은 관료가 자신이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연결되는 특성으로 공조적의 서비스가 지나는 비가시성 역시 관료가 자신의 일과 성과를 언제나 심리적으로 정당화는 촉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의 나르시시즘의 양상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관료들이 평가의 기준이나 과정을 독점하거나 적어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관료들의 마음 속에 나르시시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외에도 공조적이 지니고 있는 법적 제약이나 규정이나 관례와 같은 요인들도 관료들에게 냉정한 평가나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조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정부관료제는 국민을 고객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라는 고

객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 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시적이기도 하다. 관료는 실제로 국민을 거의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관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확인하게 힘들게 하고, 언제나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²⁶⁾

두 번째 쟁점은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이 쟁점은 다시 세 방향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은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한국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의 권위주의가 관료에게는 책임이 없는 명령과 권리를 부여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복종과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백완기, 1996: 437-439; 조석준·임도빈, 2010: 35). 유교적 권위주의의 이와 같은 문화적 특성은 한국의 관료들을 자신들이 한 일의 성과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동시에 국민들의 상황에 덜 연연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는 관료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요소인 특권의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차원에서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발전국가의 역사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관료제의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료들의 능력이나 헌신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사는 관료들이 ‘내가 해낸 일’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지닌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한국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유교적 행정문화나 발전국가의 경험에 분명히 관료 나르시시즘이 더욱 쉽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관료의 개념에서부터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26) 이 연구의 초안을 한국조직학회(2013. 11. 29.)에서 발표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숙연 교수는 공조적의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한 관료 나르시시즘의 발현 조건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강요된’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주었다. 공조적의 특성을 상황적인 제약 요건으로 보고, 관료가 나르시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여긴다면 ‘강요된’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이를 발전시키는 조건이 국가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공조직의 특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한국에서 좀 더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개념의 보편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유보하지는 않는다.

관료의 나르시시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다른 방향의 질문은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것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관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치창하고 있는 관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관료는 전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료는 ‘엘리트’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엘리트 관료의 범위를 묻고 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정책의 결정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이 연구에서 치창하고 있는 관료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적어도 엘리트 관료는 한국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정책 결정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대를 가진 관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체 관료가 관료 나르시시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엘리트로서의 관료의 조건은 대중, 즉 국민에 상대로 도출되고 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관료는 어떠한 직급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대중들로부터의 구별된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되고 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전문성이라는 권력을 보유한다. 또한 이들의 대중들에 대한 냉담은 규범으로서, 또는 규칙으로서 집단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상식적인 의미의 엘리트 관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구별이라는 의미에서의 관료의 엘리트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또 다른 방향의 질문은 관료의 나르시시즘이 구체적인 실체로서 관료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정도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에 근거하여 관료제나 관료를 이해하고, 이런 의미에서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실제의 관료제나 관료는

매우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 존재하고, 그런 이유로 그들이 나타내는 양태는 일반화시키기 힘들다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 있다.²⁷⁾ 또한 관료제와 구체적인 개인으로 관료가 지니는 개성은 구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관료가 지니고 있는 복수성과 다양성은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적 개념의 경우에는 일반화와 개념 적용의 보편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관료제나 관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잠정적으로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이 지니는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전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관료의 행태와 그 심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수용되는 한에서 이 개념의 성립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은 실증적 연구를 포함한 추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시험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세 번째 쟁점은 왜 관료들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관료들의 나르시시즘의 조건이나 발현 조건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모든 관료는 관료가 아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관료가 되면서 나르시시즘의 양태를 보이거나, 자기에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해소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관료나 관료제에 대한 합리적 기대의 좌절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결핍의 해소의 수단으로서 자기에 대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과정에 대한 규명은 단순히 가설적인

27) 월슨(1989)의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의 문제의식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의 발생 원인에 관한 정리를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하고 있다(Buss & Chiodo, 1991: 182). 그 가운데는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기원을 유아기적 자기에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대상이 준 좌절이나 실패와 연관시키는 경향도 발견된다(Kernberg, 윤순임 외, 2008). 이런 논의는 여기서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어질 후

답변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연구의 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이 연구에서 제기한 관료의 나르시시즘 개념이 직면할 수 있는 이론적인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들은 개념에 착안과 이의 이론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관료의 나르시시즘은 당연히 논쟁과 비판에 열려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관료나 관료제를 좀 더 다양한 국면에서 새로운 각도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기대한다. 연구의 심화는 이 과정에서 달성될 것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윤희. 2010. “BSC와 한국 행정조직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부산시와 부천시 사례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263-295
- 금재덕·이성도. 2009.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347-377
- 김종숙. 1997. “신세대문화연구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나르시시즘적 성격론에 관한 논의”. 《국민윤리연구》. 제37호: 411-434
- 김창수. 2009. 《관료제와 시민사회》. 한국학술정보
- 다산을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 2012. 《대한민국 목민심서》. 아침미디어
- 박천오. 2005. “정부관료제 연구의 두 관점: 특성과 과제”. 《행정논총》. 43(1): 1-31
- 백원기. 1996.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 오재록. 2009.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행정논총》. 47(2): 211-232
- 윤건수·김순희. 2013. “공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1): 1-23

- 이도형. 2012. “행정의 민주화: 시민-관료 간 우리-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8(3): 93-123
- 이만홍. 1995.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에서의 나르시시즘 이해”. 《정신병리학》. 4(1): 17-23
- 이문수. 2012a. “Sine ira et studio or Recognition - 악셀 호네프의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한 막스 베버의 관료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부학연구》. 18(3): 33-65
- _____. 2012b. “포스트모던 시대의 행정윤리: 막스 베버의 관료 윤리론의 재해석과 새로운 관료윤리의 모색”. 《한국행정논집》. 24(3): 669-692
- 이병량. 2002. “조선초 관료제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 형을 통한 해석”. 《정부학연구》. 8(1): 239-273
- 이종범. 1991. 《국민과 정부관료제(제3판)》.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창길. 2012. “관료제와 ‘관료’의 탈일체화: James Q. Wilson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8(3): 5-32
- 임도빈. 2007. “정부조직진단 사업의 조직사회학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1(4): 89-112
- 임도빈 외. 2013. 《공직사회의 낭중지추를 찾아서》. 법문사
- 임의영. 2012. “Dwight Waldo의 행정학과 관료제 다시보기”. 《정부학연구》. 18(3): 67-91
- 전영평 외. 2006. 《농촌지원 정책사례: 후계농업인, 전업농,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 조경호. 2008. “정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 2003년과 2007년 조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229-259
- 조석준·임도빈. 2010.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1994. 《한국의 경제관료》. 한국경제신문사
- 홍선미. 2008. “미술치료의 효과를 위하여: 미술 창작과 감상에 있어서 나르시시즘과 전이의 무의식적 기능”. 《라강과 현대정신분석》. 10(1): 213-237
- 황연순·구양숙. 2010. “소비자의 나르시시즘성향과 의류제품추구혜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3): 338-346
- 황진대·윤광재·전기우. 2009. “다면평가 운영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실증연구: 경상북도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3(4): 49-80
- 관료들과의 피말리는 전쟁. 《한겨레21》. 2006년 12월 6일. 제638호
그 외 신문기사

- Alford, C. Fred. 1988. *Narcissism: Socrates, the Frankfurt School, and Psychoanalytic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Buss, David M. & Lisa Mancinelli Chiodo. 1991. "Narcissistic Acts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59(2): 179-215
- Butler, Eamonn. 2012. 《나쁜 민주주의: 정치인·관료들은 왜 사익만 추구하는가?(Public Choice: A Primer)》. 이성규·김행범 역. 북코리아
- Campbell, W. Keith, & Constantine Sedikides. 1999. "Self-Threat Magnifies the Self-Serving Bias: A Meta-Analytic Integr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3(1): 23-43
- Downs, Anthony. 1967. *Inside Bureaucracy*.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 Freud, Sigmund. 2003a. "편집증 환자 슈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Psychoanalytische Bemerkung über einen autobiographisch beschriebenen Fall von Paranoia-Dementia paranoides)". 《늑대인간(프로이트전집9)》. 김명희 역. 열린책들
- _____. 2003b. "나르시시즘 서론(Zur Einführung des Narzißmus)".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프로이트전집11)》. 윤희기·박찬부 역. 열린책들
- _____. 2003c. "토텐과 터부(Totem und Tabu)". 《종교의 기원(프로이트전집13)》. 이윤기 역. 열린책들
- Holmes, Jeremy. 2002. 《나르시시즘(Narcissism)》. 유원기 역. 이제이북스
- Kalberg, Stephen. 1980. "Max Weber's Types of Rationality: Cornerstones for the Analysis of Rationalization Process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5): 1145-1179
- Kernberg, Otto F. 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외 역. 학지사
- Landau, Martin. 1977. "The Proper Domain of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2): 423-427
- Mannheim, Karl. 1952. "Orientations of Bureaucratic Thought". *Readers in Bureaucracy*. edited by Robert K. Merton, Ailsa P. Gray, Barbara Hockey, and Hanan C. Selvin. The Free Press: New York
- Ostrom, Vincent. 1974.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Revised Edition).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Ovidius. 2006.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Metamorphose)》. 천병희 역. 도서출판 숲
- Raskin, Robert N. & Calvin S. Hall.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2): 590-590

- Raskin, Robert & Howard Terry.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Thompson, Victor A. 1977. "Bureaucracy and Bureaupathology", in B. L. Hinton & H. J. Reitz (eds.). *Groups and Organizations: Integrated Readings in the Analysis of Social Behavior*.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박성환 역.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2.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Parlament und Regierung im neugeordneten Deutschland*). 이남석 역. 책세상
- Westen, Drew. 1985. *Self and Society: Narcissism, Collectivism, and the Development of Mor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 Wilson, James Q. 1989.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asic Books